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9년 표어§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국가 재건을 위하여(II)

### (느헤미야 9:1~37)

이종윤 원로목사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증거는 죄를 슬피하며 회개하는 각성된 양심이다. 그 후에야 부흥이 온다.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에는 이와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 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다(8장)
- ② 죄를 슬피하고 회개했다(9장)
- ③ 그 결과 삶에 변화가 왔다(10장)

백성들이 슬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친 결과다.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읽었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면전에서 죄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울었다(8:9). 그러나 그 날은 성일이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기뻐해야 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눈물을 멈출 것을 말하고(12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이것은 읽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세 율법책의 기록대로 7월 15일로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을 지키고 초막을 지었다. 초막에서 그들은 특별히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9:1 - 2).

### I. 느헤미야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의 슬픔을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았다

#### 1. 느헤미야는 이 때를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다

인간의 약한 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죄를 슬피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의 강요나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더 원했을 뿐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기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말한 성일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었다.

참회의 날이 지난 후 레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9:5).

#### 2. 느헤미야가 공적 참회를 3주 이상 연기시켰지만 결국은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이 회개운동은 전체적이고 하나님께 바로 한 것이다.

### II. 참된 고백과 회개(9:1 - 3)

이 회개운동에 2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백성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연결된다.

- 낮 1/4은 성경을 읽음 (초막절엔 3시간, 신년 초일엔 6시간 낭독)
- 낮 1/4은 죄를 자복함 (3시간)

그들은 말씀과 회개의 관계를 조화 있게 실천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없는 개인 · 국가의 도덕적 진보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영적 · 도덕적으로 부흥될 때 변형된 사회를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도, 응답함도 없는 자는 죄를 슬피하거나 회개할 수도 없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설교할 때 회개가 가능하다. 그들은 자기 죄와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했다. 우리는 부모의 죄를 위한 기도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죄로 내가 나쁜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 III. 레위인들의 간절한 기도(5 - 38절)

레위인들은 백성의 참회 기도를 이끌어 냈다.

- 참회의 기도
-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찬송
- 자비를 구함
-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며 송축(5절). 즉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비록 슬픈 고백의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

- ① 하나님의 창조사역(5 - 6절)
- ②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7 - 31절)
  - 아브라함의 소명(7-8절)부터 선지자들의 사역
- ③ 오늘의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32 - 37절)

느헤미야 때에 레위인들의 기도는 모범적 회개기도다. 결국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축복이 다시 나타났다.

### 결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장 14절)







# 사순절

## 四旬節

### Lent

올해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3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 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1일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 기독교인이여 조국을 수호하라!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모든 교회들은 '교회여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를 슬로건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는가!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우리는 영적 능력과 경륜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현장: '제암리 학살 보고서'를 캐나다 선교 본부에 제출하여 세상에 알린 스코필드 박사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준 사건이다. 이 운동은 한국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기독교인은 23만여 명으로, 인구의 약 1.3%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목회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은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조선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서양 선교사가 퍼뜨린 서양 종교로만 여겼던 기독교를 일본 압제하에 억눌린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조선 민족 안에는 기독교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사실 3.1운동은 일본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그 자체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날을 기점으로 3.1운동 정신은 해외로 퍼져나갔고, 독립의 열망을 담아 그 다음해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므로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항일운동이 시작되었다. 교회는 세상의 아픔에 깊숙이 참여하여 능동적이고도 당당하게 3.1운동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다. 3.1운동으로 말미암아 깊이 잠들어 있던 조선땅은 깨어났고 진보되었다.

1919년 3월 1일 선포된 독립선언서에는 자유, 정의, 평등, 박애, 비폭력 등의 기독교 정신이 깃들여 있다. 3.1운동에는 민족의 일치와 연합이 있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은 억눌린 하나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므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가톨릭 신자가 될 것인지, 개신교 신자가 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라틴어 성경밖에 없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으므로 스스로는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게 하였다. 선택권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며 자유의 본질이다. 이 자유가 개개인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다.

루터와 칼빈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종교적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루터가 가르쳐준 복음을 선택했고, 더 이상 교황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선택했다. 1919년 조선 기독교인들도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더 이상 일본 압제하에서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등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프로테스탄트들의 저항은 훗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종교개혁에서 복음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절대 왕정은 무너지게 되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자유를 경험한 개신교도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한 자유의 개념을 정치 영역에 적용한 것이 법치주의, 의회주의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고, 그 정신적 뿌리는 종교개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 대표자를 선택하고,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 국회를 만들고, 그 국가가 법을 만들어 법이 국가를 다스린다. 민주 시민은 강요에 의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법을 지키고, 나아가서 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한다. 프로테스탄트들의 도덕적 수준은 법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의회주의의 원조는 칼빈이 만든 장로교 정치 원리이다. 성도들이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제도에서 의회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교회는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좌지우지 할 수 없고, 장로들의 동의를 얻어 목회 계획을 펼쳐나가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체제도 마찬가지이다. 자유민주주의 하에 있는 근대 시민은 사적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이 사적 소유권을 근거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이루게 된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누가 강요하거나 규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자발적으로 판매하므로 이유와 효율이 증가하고 전체 사회의 부를 가져오게 된다. 이같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의 뒤에는 종교개혁이 있고, 성경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이다. 백 년 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조선땅을 수호했다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영을 흔들려 깨우고 언론이나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도적인 사고를 하며 끊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해야 할 것이다.

정리 : 허 숙 권사(편집부)



# MBC 「PD수첩」 방영 내용에 대한 반박

2019년 2월 26일 방영된 '갈라진 교회 싸우는 성도들'이라는 MBC PD수첩은 어떤 식으로든 횡령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 박노철 목사의 주장과 신뢰성조차 의심되는 일방적 자료만을 토대로 박노철 목사 측이 주장해 오던 내용들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방송 마지막에 수사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송치되었다는 멘트를 하면서도 막연히 수백 개의 차명통장과 수상한 현금거래 의혹이 있다며 서울교회 내부의 갈등에 그칠 일이 아니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야말로 '박노철 비호를 위한 방송'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균형감 잃은 방송이었고 이에 대하여 앞으로 필요한 법적대응을 하겠지만 우선 몇 가지 편파적인 편집 사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 건축자금 조달을 위해 오정수 장로의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방송을 하면서 **계좌 개설 당시 근무하지도 않았던 두 분 사무국장에게 질문한 내용만 방송하고 정작 실무직원으로서 그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답변한 당시 회계담당 이모 권사의 인터뷰 내용은 아예 제외**하면서 어떻게든 오정수 장로가 원로 목사 비호 아래 아무도 모르게 차명계좌를 운영했다는 쪽으로 끌고 가는 악의적 내용만 방송했습니다.

2. 무엇보다도 방송제목이 '갈라진 교회'이었음에도 정작 **교회가 갈라지게 된 주된 원인인 박노철 목사의 재시무투표 거부 문제**, 즉 성직자로서 부임 당시부터 재시무투표 제도를 알고 있었고 장로들에 대한 재시무투표를 직접 집행하였으며 스스로 규정에 따른 시행시기가 되면 자신도 재시무투표를 받겠다고 약속하고서도 통고에 자신이 없게 되자 갑자기 이를 내팽개친 채 헌법위반 운운하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과 이 내용들이 국가법원에서 이미 수차례 확인되어 **박노철 목사가 직무정지까지 되었다는 내용은 정작 외면**하였고, 또 위 취재기간 중 그동안 수개월 간의 치밀한 수사를 거쳐 경찰서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면서도 **최초 관심을 가졌던 재정비리 의혹 부풀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3. 또 이 방송은 저희가 위 취재과정에서 **의혹으로 제시되었던 20여 개의 사례 대부분**에 대하여 다행히 이전 고발 건 반박을 위해 자료실에서 가져왔던 자료로 **충분히 반박하면서 시간과 자료만 더 확보된다면 모든 의혹제기에 대하여 넉넉히 해명할 수 있다고 담당 PD에게 강조**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은 전혀 방송하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되어 쉽게 기억할 수도 없고 또 그 입, 출금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도 없어 해명할 수 없었던 나머지 몇몇 사례만 제시하며 교묘히 편집하여 박노철 목사 측의 황당무계한 의혹제기만 뒷받침**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의 성격과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구미에만 맞추어 그동안 전혀 있지도 아니한 서울교회의 경상계좌와 오정수 장로 관리의 건축기금 차명계좌의 돈이 섞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막연한 개연성만 부각시켰습니다.

4. 뿐만 아니라 재정비리 의혹 이슈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서울교회 재정지출의 60~70% 부분이 대외사역에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 고령의 원로 목사께 갑자기 전화하여 녹취한 통화내용을 허락도 없이 보도하여 원로 목사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 일관하였고, 또 여러 집사 등과 많은 시간 인터뷰 하였던 **박노철 목사의 형편없는 함량 미달의 목회적 자질문제를 비롯 신학적,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인터뷰 내용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바 과연 이번 방송의 본래적 의도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5. 이런 편향된 보도의 정점은 **9층 자료실이 마치 비리를 숨기기 위한 장소인 것처럼** 비취지게 했다는 점인데, 여기는 교회 모든 자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평소 분실위험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게 요구되기는 하지만 **이 자료실에 서울교회 설립 직후부터 27년여 간의 모든 행정 등 역사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울교회 교인 중 최근에 등록된 교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서울교회 20년사도 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순례자를 통하여도 당연히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이러한 자료들이 교인들 아무도 모르는 비밀장소에 숨겨져 있던 것처럼 방송하고 심지어 박노철 목사 측의 **고소고발 건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필요한 일부 자료만 1층에 가지고 내려와 보관 중 갑자기 용역 침탈로 자료실에 반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마치 저희가 재정비리를 감추기 위해 숨기거나 훼손한 것처럼 밀도 끝도 없는 박노철 목사 측 주장만 내보낸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숨겨야 할 비리 관련 자료가 있고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면 이미 교회분쟁 직후 폐기하거나 교회 밖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보관시켰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자료실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사실만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박노철 목사 측에서 최초 문제 삼은 서울교회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은 오정수 장로가 명의만 편 의상 교회로 한 것일 뿐 **1995년경부터 대치동 본당부지 구입대금으로 교회에 빌려준 70억여 원을 상환 받은 후 다시 아가페타운 구입대금 등으로 빌려주기 위해 편의상 교회 명의로 예치**하였던 차명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수 장로는 아가페타운 구입을 위해 교회에 60억원을 다시 대여할 때 그때까지

차명통장이나 그 통장의 파생상품 계좌에 모아 두었던 돈을 한꺼번에 모두 해지하여 씨티은행 통장 한 곳으로 모아 수표 한 장으로 인출하였던 것인데 방송은 위 60억원도 서울교회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도 위 60억원이 인출된 씨티은행 통장이 차명임이 밝혀지자 본래 부지구입대금으로 빌려 준 70억여 원도 교회 돈이 아니냐며 이러한 부분까지 수사하였지만 **결국 교회 돈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재정위원장이나 재정위원은 일반 회사의 재정담당자처럼 회계출납 업무에 직접 관계하는 교회직원이 아니므로 특정 장로가 교회에 금 재산을 몰래 횡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시켰음에도 어떻게 오정수 장로 혼자서 교회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인터뷰에서 오정수 장로가 분명히 횡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했지만 단순히 교회명의로 수백 개의 통장이 있었다고 하여 그 금액이 교회재산이라는 증거도 전혀 없어 결국 경찰에서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이러한 방송매체라도 이용하여 지지 동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재정절차 상 어느 특정인이 몰래 교회 돈을 빼돌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재산을 빼돌리려 하였다면 금방 들뜬 날 교회 명의가 아니라 아무도 모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일 것인데도 방송은 한마디 말도 없이 **무조건 차명통장이 많았으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박노철 목사 측이 주장하는 내용만** 대변하여 주었고 이를 통해 마치 시청자들이 세상의 많은 사례처럼 차명통장을 이용하여 교회 돈을 목사와 짜고 횡령한 듯 오인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보도를 이어 간 것입니다.

7. 교회 내 전자 제품들이 오정수 장로가 취급하는 특정회사 제품이라며 마치 무슨 큰 비리인 것처럼 주장하나, **교회 설립 초기에는 오정수 장로가 모두 무료로 현금**하다가 이후 일부 대리점에 내보내는 **원가 수준에서 제공**하였고 그 외 나머지 시스템에어컨 등은 오정수 장로가 직접 취급하는 상품도 아니어서 사무국에서 **별도로 설치**한 것인데도 이러한 사정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교인들이 막연한 추측으로 이런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8. 또 오정수 장로가 박노철 목사와 1:1로 만나 떠나는 것을 전제로 1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먼저 심지어 세금 회피 방안까지 언급했다는 박노철 목사의 인터뷰 내용 역시 새빨간 거짓입니다.

(4면 계속)

저희는 박노철 목사에 대한 권징청구 재항고사건이 총회재판국에서 논의될 당시 재판국의 화해중재 위원으로 있던 어느 목사를 통해 박노철 목사와 논의하였다며 떠나는 조건으로 12억원 정도 지급할 것을 제안 받았고 처음에는 돈으로 목사와 화해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으나 교회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권면에 이를 받아들이며 오하러 목사가 돈을 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소문이 나면 곤란할 것 같은 개인입장까지 고려하여 박노철 목사가 떠나게 될 캐나다 지역을 염두에 두고 '서울교회 미주지역 해외선교사 파송'의 명목을 붙여 교회의 공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공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초안까지 작성하여 중재목사를 통해 보내자 박노철 목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지교인들의 반대로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여 무산되게 된 것이며, 그 직후 이번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측근 장로를 통해 다시 20억원을 지급할 수 없느냐는 제안이 왔으나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거룩한 헌금을 가지고 흥정하자는 것이나 이를 거절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인터뷰 과정에서 밝혔음

도 마치 저희가 담임목사 자리를 가지고 은밀히 거래라도 시도한 것처럼 박노철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한 것입니다.

또 당시 오정수 장로는 재판국의 화해중재목사를 통하여 대화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소설처럼 부풀려 개인적으로 만나 세금회피 등의 제안까지 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결국 박노철 목사는 돈의 유혹을 뿌리친 사람으로, 오정수 장로는 돈으로 자리를 거래한 사람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이러한 사실왜곡을 바로잡기에 충분한, 또 공개되면 엄청난 충격에 빠질 녹취까지 가지고 있으나 또 다른 세상의 부끄러운 모습이 될까봐 아직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PD수첩이 취재원의 멘트를 '맹목적 인용'하고 자신의 의도에 맞춰 편집해 방영한 것은 언론의 기능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고 결국 이는 객관적 보도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편향된 방송으로 분명한 사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청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즉각 그 시정을 요구합니다.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중운·홍순복 감우균·김연화1 박연옥 오효근 안흥희·전화진 홍일성·이명아 황보추차 성춘모 하인선·남태순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등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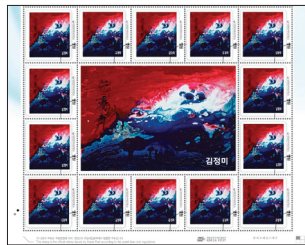
- 이중운 원로 목사는 3.5(화) 호산나대학 입학식 설교를 한다.
- 승진 : 노선균 집사(11교구 김의정 집사 부군,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장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부교수
- 금주의 식사 : 차도훈 장로 · 남태영 권사 가정 (강명석 성도 · 차선혜 집사 가정 - 강한나 첫돌 감사 바섯달밥)

##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7시



▲ 김정미 권사(13교구) - 한국예총상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우표발행」

평화통일을 주제로하며 과거 일제시대의 민족적인 역사를 고취하고 당면해 있는 남북의 과제를 태극기로 모티브삼아 분단된 지도를 연상케하며 남북의 화합을 위한 영원을 그림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4일	월	신 5-7		왕하 16-21	
3월5일	화	신 8-11		왕하 22-25, 대상 1-2	
3월6일	수	신 12-14		대상 3-6	
3월7일	목	신 15-18		대상 7-11	
3월8일	금	신 19-22		대상 12-16	
3월9일	토	신 23-26		대상 17-24	
3월10일	주일	신 27-28		대상 25-2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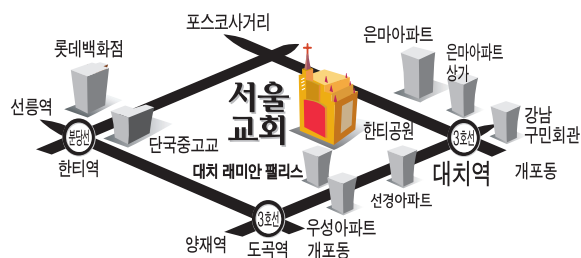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금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불법 세력들이 제거되고 교회가 속히 회복되도록
- 우리교회가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